

高麗 武人政權 時代의 文인 朴仁碩

—고문 존중·계승과 관련하여—

류 창 규

I. 머리말

II. 金甫當의 난과 朴仁碩

III. 은거 기간의 朴仁碩

IV. 崔忠獻 정권과 朴仁碩

V. 맺음말

I. 머리말

朴仁碩은 毅宗 말 관계에 진출하였다가 明宗 3년(1173) 金甫當의 난 이후 관계에서 물러나 20여년 동안 지방에 은거하였으며, 明宗 26년(1196) 崔忠獻이 집권하면서 정계에 다시 등장하였다.¹⁾ 이러한 朴仁碩의 동태는 武人政權 초기 문인²⁾의 지위 변화와 지방 은거 문인의 양상, 崔忠獻 정권의 등장에 따른 문인의 동향 등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朴仁碩을 통하여 武人政權 시대 문인의 동향 가운데 하나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武人政權 시대 중앙 정계에서 상당 기간 소외당한 문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 가운데는 朴仁碩과 같이 상당한 시간 지방에 은거한 문인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³⁾ 대부분이 중앙에 거주한

1) 『韓國金石全文』中世 下「朴仁碩 墓誌」, 153~157면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될 것이다.

2) 문인이란 학문·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과 문신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인은 종래 문사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했다.

3) 李佑成, 「高麗 武臣執權下의 文人知識層의 動向」, 『嶺南大學校開校 30週年紀念國際學術會議發表會論文集』(嶺南大, 1977); 『韓國의 歷史像』(創作과 批評社, 1982). 金毅圭, 「高麗 武人政權期 文士의 政治活動」, 『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知識產業社, 1981).

문인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왔다.⁴⁾ 지방에 은거한 문인에 대한 검토는 은거 생활로 생애를 마친 몇 사람에게 한하여 그들의 학문 활동과 정치면에서의 관계 진출에 대한 의도 등을 밝히는데 머물렀다. 따라서 지방에 은거한 문인들의 은거하기까지의 과정 및 은거한 이후 구체적인 활동 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朴仁碩이 金甫當의 난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朴仁碩 가계의 중앙 진출 과정과 정치 입장, 은거 지역의 분위기 등이 검토될 것이다. 다음으로 은거 기간 동안 朴仁碩의 동향을 주로 다른 문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밝혀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崔忠獻 정권 아래서 朴仁碩의 정계 진출과 문인으로서 활동 등을 알아보겠다. 이러한 朴仁碩에 대한 연구가 武人政權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문인 지식층의 지위 변화와 동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金甫當의 난과 朴仁碩

朴仁碩은 毅宗 말에 문음으로 관직에 올라 明宗 즉위년(1170)에는 內侍로 있으면서 都校署令(從 8品)에 임명되었다.⁵⁾ 이후 朴仁碩이 明宗 1년(1171) 試司宰注簿(從 7品)로 임명되었다는 것과,⁶⁾ 朴仁碩의 부 朴育

이들 논문도 지방 은거 문인 만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들 논문에서는 武人政權 시대 문인(문사)을 정권 참여 및 은거 생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 4) 주로 중앙에 거주하면서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문인 개개인에 관한 논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았다. 武人政權 시대 문인의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朴薰熙, 「武人政權時代의 文人」,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金穀圭, 「高麗 武臣執權期 文臣의 政治的 動向」, 『史學論』 3 (同德女大, 1975).

張叔卿, 「高麗 武人政權下 文士의 動態와 性格」, 『韓國史研究』 34 (韓國史研究會, 1981).

- 5) 「朴仁碩 墓誌」, 954 면.

- 6) 위와 동일.

和가 明宗 3년(1173) 守司空 左僕射(正 2品)로 임명된 사실로⁷⁾ 미루어 朴仁碩의 가계는 毅宗 24년(1170) 鄭仲夫 등에 의한 武人政權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문반 가계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朴仁碩의 가계에 변화가 닥쳤음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① 왕(明宗)이 (朴仁碩의) 충성됨을 알고 크게 쓰려하였으나 국가가 곤경에 처하고 衣冠(文班)이 거의 없어지자 (朴仁碩은) 관직을 버리고 남으로 갔다. (朴仁碩은) 北原(原州)의 민속이 옛스럽고 거주하기 마땅하다 함을 듣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前御史 權不華(敦禮)와 함께 경치를 즐겼다.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朴仁碩 墓誌」)

위 기록에 의하여 朴仁碩은 중앙 정계에서 문신에 대한 탄압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朴仁碩이 지방으로 가게된 것은 金甫當의 난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明宗 초기에 문신들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은 明宗 3년(1173) 金甫當의 난이 일어나면서이다.⁸⁾ 당시 金甫當의 난과 관련된 문신 및 직접 관련이 없는 문신,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탄압이 행해졌으며, 朴育和·朴仁碩이 金甫當의 난 이후 중앙 정계에 머무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金甫當의 난 이후 朴仁碩 가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⁹⁾

朴仁碩의 부 朴育和는 金甫當의 난 이후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 알 수 없다. 朴仁碩이 관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 사실로 짐작하건대 朴育和 역시 무사히 중앙에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앙 관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 朴仁碩은 가①에 의하면 原州(北原)에 거주하게 되었다 한다. 朴仁碩의 출신지 즉 본관은 竹山(竹州)이다.¹⁰⁾ 朴仁碩은 자신의 본관인 竹

7) 『高麗史』 19 明宗 3년 정월 조.

8) 金甫當의 난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邊太燮, 「武臣政權期 反武臣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19 (1978).

黃秉晟, 「金甫當亂의 一性格」, 『韓國史研究』 49 (1985).

9) 黃秉晟, 앞의 논문, 43~45면.

山을 놔두고 原州를 자신의 은거처로 삼았던 것이다.

高麗 시대 중앙 관리들이 본관에 가진 영향력 내지 연고권과,¹¹⁾ 金甫當의 난 이후 관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 문신들 가운데 본관에 은거한 인물들이 있었던 사실¹²⁾ 염두에 두면 朴仁碩의 原州 은거는 색다른 점이다. 朴仁碩이 자신의 본관이 아닌 原州에 은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朴仁碩 가계의 중앙 진출 과정과 중앙에서의 정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당시 原州의 분위기를 살펴봄으로써 朴仁碩이 原州를 은거처로 선택한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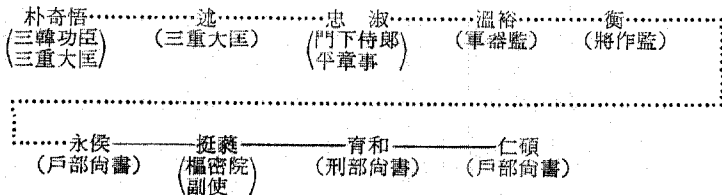
朴仁碩은 太祖 王建 때 三韓功臣였던 朴奇梧의 9세손이다.¹³⁾ 朴仁碩의 선조는 高麗 초 竹山 지역의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고 하겠다. 朴仁碩의 선대가 高麗 초기부터 중앙에 진출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중앙 내지는 竹山에서 지배계층으로써 활동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된다. 이러한 朴仁碩의 선조는 朴仁碩의 고조부 朴衡 때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것 같다.

10) 「朴仁碩 墓誌」, 953 면.

11) 高麗 시대 중앙으로 가 관리가 된 사람들은 출신지 즉 본관에 남아 있는 사람과는 다른 신분층을 형성하였지만, 사심관 제도라든가 출신지에 남아 있는 일가 친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본관에 연고권을 가졌다(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190~193면 참조).

12) 기록에 의하면 李勝章은 본관 尙州로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李勝章 墓誌」), 金平은 본관 昇平郡(昇州)으로 도피하였다(『高麗史』 100 奇卓誠 傳).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문인 林椿도 본관 醴泉으로 도피하였다 한다(朴菴熙, 앞의 논문, 262면).

13) 「朴仁碩 墓誌」, 953 면. 竹山 朴氏 족보에는 朴仁碩의 선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② 高麗 仁宗 때에 朴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품이 인자하고 배물기를 좋아했다. ……어느때인가 부모상을 당하고 이어서 형제·처자의 상까지 당하였으며, 가계 역시 망하게 되었다. 衡이 근심하며 강과 산으로 방랑하다 하루는 龍山에 도착하였다. ……淸溪洞을 방문하니 과연 進士 柳絮가 있었는데 집이 부유하고 딸이 하나 있어 一年綠이라 불렀다. 같은 이웃에 柳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부유하고, 딸이 하나 있어 二年綠이라 불렀다. ……주인(柳絮·柳田)이 크게 기뻐하고 즉시 사위로 삼았다. 이로써 두 여자와 혼인하게 되고 집안 역시 부유하게 되었다. (『靑鶴集』¹⁴⁾,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2~183면)

朴仁碩의 고조부 朴衡 때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중앙 내지는 본관 竹山에 가지고 있던 정치·경제 기반은 물론 가족까지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朴衡은 龍山의 淸溪洞에 거주한 進士 柳絮의 딸 및 柳田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가계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가 ②). 朴衡의 혼인은 중앙 진출에 실패하고 지방에 머무른 것으로 추측되는 進士 柳絮와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朴衡은 柳絮와 결합함으로써 경제 기반 뿐만 아니라 학문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朴衡이 마련한 토대를 발판으로 그의 손자 朴挺蕤는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朴挺蕤는 睿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중앙에 정착하게 되었다.¹⁵⁾ 朴挺蕤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朴衡이 龍山에서 마련한 경제·학문의 기반 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중앙 정계에 진출한 朴挺蕤는 仁宗 때 樞密院副使(正 3品)직에 오르는 등 문관으로서의 지위를 높여갔다.¹⁶⁾

14) 『靑鶴集』은 朝鮮 宣祖에서 仁祖 년간 仙家였던 趙汝籍이 지은 것이다(韓永愚, 「靑鶴集 解題」, 『靑鶴集』 영인본). 선가의 비기류 같은 『靑鶴集』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믿기 힘들다, 朴衡에 관한 기록은 朴仁碩의 선조 때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15) 『高麗史』 98 朴挺蕤 전에 의하면 朴挺蕤는 睿宗 때에 급제하였다 한다. 「朴仁碩 墓誌」에는 朴永侯가 朝議大夫 戶部尙書로 되어 있어 朴永侯의 관계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朴永侯에 관한 다른 기록이 없고, 관직도 추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朴挺蕤 때 중앙에서 가계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朴挺蕤가 고위직에 오른 덕분에 그의 아들 朴育和도 관계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¹⁷⁾ 朴育和는 관계에 오른 이후 朴挺蕤 때부터 형성되어 온 문반 가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데에 노력하였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그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가③ 처음에 (文克謙이) 疎를 작성하였는데 諫議 李知深, 給事中 朴育和, 起居注 尹鱗膺 등이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 克謙이 좌천되었는데도 직무를 보며 태연자약하였다. (『高麗史節要』 11 毅宗 17년 8월)

위 기록은 文克謙이 宦官 白善淵, 宮人 無比, 術客 榮饒, 左常侍 崔褒僞 등의 잘못된 행동을 탄핵하고자 하는데,¹⁸⁾ 다른 諫官들이 따라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일부 내용이다. 朴育和 등이 諫官으로써 취한 태도는 文克謙과는 대조적이다. 文克謙은 睿宗 때에 韓安仁 등과 함께 李資謙의 세력에 도전했던 文公裕의 아들이다.¹⁹⁾ 신흥세력으로서 기존의 문벌세력에 도전했던 文公裕의 아들인 文克謙은 왕을 중심으로 한 측근세력의 권력 남용에 대하여 諫官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던 것이다.²⁰⁾ 이에 비해 睿宗 이후 문반으로서 지위를 유지한 신흥세력이라 할 수 있는 朴育和는 자신의 정치 지위 유지에 급급했다.

朴挺蕤 때부터 형성된 문반 가계로서의 지위는 朴育和의 노력에 의해 높아져 갔다. 그것은 毅宗 때까지 중앙에서 문벌 가계를 형성하여 온 溟州 金氏 집안의 金闡²¹⁾의 딸과 朴仁碩이 혼인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6) 『高麗史』 98 朴挺蕤 전.

17) 朴育和의 급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朴挺蕤 덕분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18) 『高麗史節要』 11 毅宗 17년 8월 조 및 『高麗史』 99 文克謙 전.

19) E.J. schultz, 「韓安仁派의 登場과 그 役割」, 『歷史學報』 99·100 合 (歷史學會, 1983), 177 면 및 朴龍雲, 「高麗前期 文班과 武班의 身分問題」, 『韓國史研究』 21·22 合 (1978), 36~45 면.

20) E.J. schultz, 앞의 논문, 177 면.

21) 귀족 문반가계로서 溟州(江陵) 金氏에 『대해서는 邊太燮,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 『史學研究』 11 (1961); 「高麗 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311

金闕 가계와 朴育和 가계의 결합은 朴育和 가계의 문반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武人政權 이후 朴育和 가계가 문반으로서 지위를 한동안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던 것 같다.

金闕은 武人政權 등장 이전 毅宗의 內侍로 殿中監(從 3品)직을 맡고 있었다.²²⁾ 毅宗의 측근이나 內侍로 있던 문신들이 거의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金闕은 武人政權 성립 이후 첫번째 인사 이동 때 樞密院副使에 임명되었다.²³⁾ 金闕이 武人政權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²⁴⁾ 무인들로부터 보호와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明宗 2년(1172) 金闕이 鄭仲夫, 尹麟瞻, 陳俊 등과 함께 兵馬使로 임명된 사실은²⁵⁾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 해 준다. 武人政權 아래에서 金闕의 위치는 朴育和나 朴仁碩이 계속 문반 관리로 남아 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武人政權의 등장 이후에도 지속된 朴仁碩 가계의 문반으로서의 지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金甫當의 난 이후 무너졌다. 金甫當의 난에 朴育和나 朴仁碩이 직접 관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仁碩 가계가 문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金闕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金闕은 金甫當의 동생 金至當과 인척관계였으므로 金甫當의 난 이후 화를 당했을 것이다.²⁶⁾ 이러한 사실은 朴育和나 朴仁碩이 관직에 머무를 수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朴仁碩은 가①에 보이

면과 李樹健, 「高麗前期 支配勢力과 土姓」,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188~192면을 참고하라.

22) 『高麗史節要』 11 毅宗 24년 윤 5월 조.

23) 『高麗史』 19 明宗 즉위년 9월 조.

24) 黃秉晟은 金闕·朴育和 등이 명문 귀족의 후예로 가계의 후광에 크게 힘입어 武人政權 때 재등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앞의 논문, 31~32면).

25) 『高麗史節要』 12 明宗 2년 정월. 金闕이 鄭仲夫·陳俊 등 고위 무인과 함께 兵馬使로 임명된 것은 武人政權 등장 이전부터 武人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데에도 그 까닭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26) 金闕은 金至當의 처남 崔寬의 장인이었다(黃秉晟, 앞의 논문, 37면). 金闕은 金甫當의 난 이후 기록상에 보이지 않는다.

듯이 관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피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朴仁碩은 굳이 자신의 본관 竹山을 은거처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高麗 초 竹山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계가 몰락하고 朴衡이 본관이 아닌 龍山 淸溪洞의 처가를 근거로 가계를 재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朴衡의 처가가 朴仁碩에게는 특별히 연계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도 아니었을 듯싶다. 이처럼 지방에 특별한 연고지를 갖지 못한 朴仁碩으로서는 다른 이유에서 은거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朴仁碩은 原州를 은거처로 선택하게 되었다. 原州는 가①의 기록에 의하면 민속이 옛스러워 거주하기 마땅한 곳이었다 한다. 朴仁碩이 原州를 그처럼 생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가①에 보이는, 朴仁碩과 함께 原州에 기거한 權敦禮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그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權敦禮(不華)는 毅宗 때 御史직에 있었던 인물로 朴仁碩 보다 먼저 原州에 은거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²⁷⁾ 權敦禮 가계는 權敦禮의 조부까지는 安東의 향리계층이었으며,²⁸⁾ 부 權適²⁹⁾이 중앙 정계에 등장함으로써 睿宗 때부터 중앙에 기반을 형성한 신흥세력이었다. 朴敦禮는 부 權適의 덕분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御史직에 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⁰⁾

安東이 본관인 權敦禮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原州에 은거하였다. 權敦禮가 原州에 은거하게 된 연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시사하는 바 있다.

가④ 20 세에 (權適이) 北原(原州) 開善寺에 갔다. 마침 그 곳 進士 申毅夫의

27) 權敦禮의 字는 不華이다(李祐成, 앞의 논문, 189면). 權敦禮는 武人政權 등장 이후 곧 바로 原州에 은거하였던 것 같다.

28)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權適 墓誌」, 668면.

29) 「權適 墓誌」 참조.

30) 權敦禮는 毅宗 2년(1148) 良醞令同正직에 있었다(「權適 墓誌」, 670~671면). 과거 급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權敦禮는 음서로 관계에 진출한 것 같다.

꿈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이곳에 謫仙이 올 것이다” 하였는데 公(權適)이 오니 그 꿈이 맞았다. 申毅夫가 시를 짓기를 ‘그대를 알았으니 신선의 손님이요, 잠시 인간 세상에 귀양왔으니 좋은 경치를 즐기시오’라 하였다. (權適이) 開善寺 별사에서 起信論을 읽었는데 다 마치지 않고 깨달은 바 있어 눈물을 흘렸다.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權適 墓誌」)

위 기록은 睿宗 7년(1112) 權適이 과거에 합격했으나,³¹⁾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서 原州에 갔을 때의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가④의 原州에 기거한 進士 申毅夫는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방에 거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申毅夫가 權適을 맞이하는 가④의 내용으로 보아 둘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하겠다. 權適은 자신과 입장을 같이 한 申毅夫를 통해 原州에 연계를 맺었던 것이다.

原州에서의 權適과 申毅夫와의 교류는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權適이 睿宗 10년(1115) 22세 때에 進士 金端 등과 宋에 유학하게 되었으며, 睿宗 12년(1117) 宋에서 귀국하여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사실로 그렇게 여겨진다.³²⁾ 오랜 시간 原州에서의 교류가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權適은 같은 입장에 처한 申毅夫와의 교류로 말미암아 原州에 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原州에 가진 문인과의 유대관계는 權適이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계속하여 이어졌던 것 같다. 權敦禮가 原州에 은거한 것은 그러한 연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權敦禮는 原州에 은거함으로써 관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문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부 權適 때부터 형성된 문인과의 관계는 權敦禮에게 문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립

31) 「權適 墓誌」, 668면. 權適의 활동과 관련하여 崔柄憲, 「高麗中期 李資玄의 禪과 居士佛敎의 性格」,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 1983), 50~51면이 참고된다.

32) 「權適 墓誌」, 669~670면 및 『高麗史』 14 睿宗 10년 7월 조, 12년 5월 조.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權敦禮는 이러한 이유로 原州를 은거처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睿宗 때부터 문인간의 교류가 진행되어 문인으로서 폭 넓은 활동과 지위 유지가 가능한 곳이며, 武人政權 등장 이후 전직 문반 관리였던 權敦禮가 활동하고 있던 原州는 朴仁碩에게 문인이 존중받는 옛 습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朴仁碩은 이러한 原州에 은거함으로써 자신 역시 문인으로서의 활동과 지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朴仁碩은 金甫當의 난 이후 문신으로서의 지위는 잃게 되었지만 순수 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原州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Ⅲ. 은거 기간의 朴仁碩

朴仁碩은 原州에 은거한 이후 다른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 문인으로서의 지위를 쌓아 갔던 것 같다. 權敦禮를 비롯한 原州에 많이 모여들었다는 문인들은³³⁾ 朴仁碩에게 직접적인 교류의 상대였을 것이며 활동 근거를 마련해 주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朴仁碩은 原州 외에, 서울에 거주한 문인과도 교류했다.

나① 某(林椿)는 아뢰입니다. 금월 모일에 승려 中隱이 서울(開京)에 도착하는 편에 큰 작품 한 편을 보내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閣下(朴仁碩)는 문장 도덕이 한 시대의 군자로 선택되었으며, 비록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서 깊이 숨고 은둔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고자 아니했지만 대단한 명에는 무성하여 사람들 모두가 촉망하고 있습니다. (『西河集』³⁴⁾ 4 「答朴仁碩書」)

위 서신을 통해 朴仁碩은 서울에 거주한 문인 林椿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朴仁碩은 林椿과 학문·문학의 교류를 하였던 것이다. 朴仁碩이

33) 原州에는 많은 高人和 선비가 모여들었다 한다(『西河集』 4 「代李湛之 寄權御史敦禮書」 참조).

34) 『西河集』의 번역은 秦星圭의 역주본을 참고했다(『西河集』, 一志社, 1984).

林椿에게 문학 작품을 보냈다는 나①의 내용과, 林椿이 朴仁碩에게 시를 지어보낸 것으로 보아 그것을 알 수 있다.³⁵⁾

朴仁碩이 서울의 문인과 교류할 수 있었던 데에는 權敦禮의 노력도 작용한 것 같다. 權敦禮는 서울에 거주한 문인 李湛之와 교류하고 있었다.³⁶⁾ 李湛之를 대신하여 林椿이 權敦禮에게 보낸 글을 살펴보자.

나② 襄陽(醴泉) 사람 林椿은 도를 사모하는 선비인데 이제 승려 中隱이 돌아가는 편에 시 한 수를 지어 보내는 것은 뜻의 있는 곳을 보고자 함입니다. (『西河集』 4 「代李湛之 寄權御史敦禮書」)

林椿은 승려 中隱을 통해 權敦禮에게 시를 지어 보내고 있다. 승려 中隱은 서울에 거주한 李湛之·林椿 등과 原州의 權敦禮가 교류하는데 중간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승려 中隱은 나①에 의하면 朴仁碩의 작품을 林椿에게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다. 朴仁碩과 權敦禮는 동일한 통로로 서울의 문인과 교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朴仁碩은 權敦禮가 교류한 서울의 문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朴仁碩과 權敦禮가 교류한 林椿과 李湛之는 중앙에 거주하면서 竹林高會에 참가한 인물이기도 하다.³⁷⁾ 林椿·李湛之가 竹林高會와 관련된 다른 문인과 가까웠던 만큼 朴仁碩·權敦禮도 竹林高會에 참여하는 다른 문인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朴仁碩은 權敦禮와 함께 原州 거주 문인과 직접 교류하면서 서울의 문인과의 접촉하는 등 문인들 사이에 연계를 넓혔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朴仁碩은 문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했던 것 같다. 나①의 편지에서 林椿이 朴仁碩에 대해 말

35) 『西河集』에는 林椿이 朴仁碩에게 보내는 시 「寄北原鷄林先生」, 「復次前韻寄雞林朴先生仁碩」이 실려 있다.

36) 『西河集』 4 「代李湛之 寄權御史敦禮書」.

37) 竹林高會는 明宗 14년(1184) 경 만들어졌다 한다(朴菡熙, 앞의 논문, 257면). 이 회에 참가한 인물은 李仁老, 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 등이다(『高麗史』 102 李仁老 傳). 이들은 竹林高會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서로 연계가 있었을 것이다.

한 내용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林椿 등 일부 문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朴仁碩은 학문·문학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궁금하다. 이 점을 알기 위해 먼저 林椿과 權敦禮의 학문·문학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林椿은 문학수업이란 고문을 계승·발양하는 것이라 주장했던 고문 존중의 문인이었다 한다.³⁸⁾ 이러한 林椿의 학풍·문풍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의 백부 林宗庇이다.³⁹⁾ 林宗庇는 權適의 문하에서 급제하였으며 權適으로부터 학문·문학 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⁴⁰⁾ 林椿과 교류한 權敦禮는 부 權適으로부터 학문·문학을 익혔을 것이다. 權適이 權敦禮와 林宗庇에게, 林宗庇가 林椿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면 權敦禮는 고문 존중의 문인 林椿과 상통하는 학문·문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林椿이 權敦禮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자.

나③ 오직 선생(權敦禮)의 깊은 생각과 고요한 사려가 물의에 부응하고 부름

38) 朴菴熙, 앞의 논문, 263면. 古文주의란 前漢 말에 국가의 공인을 얻어 유력하게 된 孔子의 경전들과 禮記·孟子·老子 등에 입각하여 문학을 도의 표현으로 삼고, 그 도는 중국 고대에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났기에 문학은 고대의 시문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한다(朴菴熙, 앞의 논문, 263면). 唐宋八大家의 문장은 고문풍을 대표하는 것으로, 高麗에 '있어서는 肅·仁宗 때에 고문체가 金富軾 형제에 의해 정립되었다 한다(尹南漢, 「儒學의 性格」,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75), 255~258면).

39) 林椿의 학문은 실로 그의 백부 林宗庇에게 배운 것이라 한다(李仁老, 「西河先生集序」, 『西河集』). 李仁老是 「西河先生集序」에서 林椿의 문장은 고문을 배웠고, 시는 騷雅(屈原의 離騷와 詩經의 雅)의 풍이 있다 하였다. 따라서 李仁老가 椿林의 학문이 林宗庇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한 것은 바로 고문 계승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秦星圭는 林宗庇가 4·6문에 익숙하였고, 林椿이 지은 啓가 4·6문의 구조임을 들어 林椿은 林宗庇로부터 4·6문의 문장을 배웠다고 하고 있다(「林椿의 生涯와 現實認識」, 『韓國史研究 45』 (1984), 43~44면). 林宗庇나 林椿이 啓를 짓는데 4·6문을 사용했으나 이것은 啓를 짓는데 한정된 것이고, 이들의 입장은 당시 성행하던 고문 존중의 문풍을 간직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40) 林宗庇가 지은 「上座主權學士(適)謝及第啓」(『東文選』 45, 啓)와 崔滋가 지은 「權學士適奉國表遊學於宋」(『補閑集』 上)을 보면 權適과 林宗庇가 座主, 門生 관계였으며, 權適이 林宗庇의 글에 대하여 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응한다면 천하 백성의 복입니다. 우리의 도가 크게 행함에 사물은 반드시 이로움을 입을 것이고 저같이 마르고 버려진 선비에 이르러서도 남은 윤택을 받을 수 있거늘 어찌 한 물건의 이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西河集』 4 「答同前(權敦禮)書」)

林椿은 權敦禮의 생각과 도가 세상에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있다. 林椿이 언급한 權敦禮의 생각과 도에는 權敦禮의 학문·문학에 대한 입장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정계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武人政權으로부터 소외된 고문 존중의 문인 林椿이⁴¹⁾ 지방에 은거한 權敦禮의 생각과 도가 세상에 널리 받아지기를 원한 것은 바로 자신의 학문·문학의 입장이 집권층에 의해 받아지기를 바란 것이라 하겠다. 林椿은 權敦禮와 학문·문학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林椿이 도덕·문장에 있어서 군자라 칭한 朴仁碩도 權敦禮와 비슷한 학문·문학의 입장을 갖지 않았나 생각된다. 朴仁碩이 權敦禮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朴仁碩의 학문·문학의 경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참고하여 보자.

나④ 兪升旦은 처음 이름이 元淳이요, 仁同縣 사람이다. ……특히 고문에 능숙하여 元淳의 문장이라 칭하였다. ……일찌기 尙書 朴仁碩의 집을 지나니 朴仁碩이 사람을 알아보고 예의를 다하여 대접하였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朴仁碩이 “이 사람(兪升旦)은 밤을 비추는 신기한 구슬과 같다.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왔음에야”라 대답하였다. (『高麗史』 102 兪升旦 전)

위 기록은 朴仁碩이 정계에 재등장 한 이후 兪升旦과 만났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朴仁碩은 여러 사람들이 까닭을 알지 못할 만큼 兪升旦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다. 朴仁碩이 兪升旦을 높이 평가하고 극진히 대우한 것은 兪升旦이 元淳의 문장이라 일컬어질 만큼 고문에 뛰어났기 때문이었다고 추측된다. 朴仁碩은 고문을 존중하는 문인이었기에 고문 존중·계승

41) 朴舊熙, 앞의 논문, 264~265 면.

의 경향을 가진 문인을 또한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朴仁碩의 고문 존중·제승 태도는 原州에서의 은거 생활을 통해서 확고해진 것 같다. 權敦禮·林椿 등 고문 존중 태도를 가진 문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朴仁碩은 고문 존중의 문인으로서 위치를 확실히 자리잡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고문 존중 태도를 확립한 朴仁碩은 原州를 비롯한 중앙의 일부 문인 사이에서 문인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문인과의 교류, 고문 존중의 학문·문학면에서의 입장 확립을 통해 문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한 朴仁碩은 原州에서 교수 활동에도 참여했던 것 같다. 朴仁碩이 직접 가르쳤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행동한 權敦禮의 경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⑤ 근래에 들으니 선생(權敦禮)은 항상 문을 닫고 가르치니, 제자들은 날로 성하며, 외우고 익히는 소리가 洙泗(孔子的 문하)에 비유할 만 합니다. (『西河集』 4 「答同前書」)

林椿의 편지로 알 수 있듯이 權敦禮는 상당수의 제자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朴仁碩도 權敦禮의 교수 활동에 참여했다고 생각된다. 朴仁碩과 權敦禮는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문인과 교류했으며, 학문·문학에 있어서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교수 활동에 있어서도 서로 관련을 가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權敦禮를 주축으로 한 朴仁碩의 교수 활동은 지방관 및 향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 같다.⁴²⁾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추정되는 神駿(吳廷碩)의 경우 公州에 은거하면서 지방관의 자제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보인다.⁴³⁾ 神駿이 지방관 자제 뿐만 아니라 향리 자제까지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⁴⁴⁾ 權敦禮·朴仁碩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짐작된다.

原州에서 權敦禮를 주축으로 한 朴仁碩의 교수 활동은 고문 존중의 입장

42) 李佑成, 앞의 논문, 191~192 면.

43) 『破閑集』 下 「白雲子神駿掛冠神虎」

44) 李佑成, 앞의 논문, 191 면.

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林椿이 權敦禮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나⑥ 대대로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세교가 있는 지 오래되어 옷을 걸어 올리
고 찾아 뵈어 제자의 예를 행하고자 하였으나 어깨가 선생(權敦禮)의 담장을 스
치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西河集』 4 「答同前書」)

林椿이 權敦禮에게 제자의 예의를 갖추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의례적이었
다고 할 수는 없다. 林椿은 權敦禮로부터 학문·문학을 배우고자 하는 의
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林椿은 武人政權에 참여하지 못한 데에 대한 반발
과,⁴⁵⁾ 權敦禮 등이 자신과 동일한 고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權敦禮로부터 학문·문학을 배우고자 했을 것이다. 林椿이 나⑤의
편지 내용 가운데 權敦禮의 가르치는 모습을 孔子와 비교한 것도 문하생
이 많았다는 것 만이 아닌 고문 위주의 학문·문학수업을 엄두에 두고 말
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朴仁碩의 原州에서 활동도 武人政權 아래서 계속되지는 못
했다.

나⑦ 前御史 權不華와 함께 (原州에서) 경치를 즐겼다. 문득 소문이 떠돌아
언제 뵈가 미칠까 예측하지 못하였다. 중앙 정계에 公(朴仁碩)을 애석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延昌郡(竹山)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朴
仁碩 墓誌」)

原州에 은거한 朴仁碩과 權敦禮 등에게 신변의 위협이 따랐던 것이다.
武人政權으로부터 소외된 朴仁碩·權敦禮 등 일부 문인이 서로 연계세력
을 형성한 原州는 武人政權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朴仁碩이 原州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 林椿
이 明宗 10년(1180) 경 서울로 돌아와 거주했으며 明宗 14년(1184) 경 竹
林高會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⁴⁶⁾ 이 기간에 朴仁碩과 權敦禮는 原州에 거

45) 朴舊熙, 앞의 논문, 264~265면.

주하면서 서울의 林椿과 교류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朴仁碩·權敦禮에게 직접 신변의 위협이 가해진 것은 明宗 14년 李義旼이 집권한 이후라고 하겠다. 李義旼 정권이 문인에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대우를 했던 것으로 보아⁴⁷⁾ 朴仁碩 등도 李義旼 정권 등장 이후 통제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朴仁碩이 原州에서 竹山으로 간 이후 原州에서의 문인들의 활동도 미약하게 되었을 것이다. 朴仁碩과 마찬가지로 權敦禮를 비롯한 문인들은 武人政權의 탄압을 피해 각기 나름대로 활로를 찾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武人政權 시대 原州를 통하여 고문 존중의 문인들이 형성한 연계세력은 무너졌다고 하겠다.⁴⁸⁾

본관 竹山으로 옮긴 朴仁碩은 竹山の 檜谷에 거주하면서 檜谷居士라 칭하며 생활하였다.⁴⁹⁾ 朴仁碩은 그 곳에서 몸소 농사를 지어 의식을 해결하며 옛사람의 책을 읽었다. 朴仁碩은 혼자서 학문·문학의 역량을 키워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은거 기간 朴仁碩의 활동과 태도는 武人政權 자체를 부정하거나 武人政權 아래에서 관계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朴仁碩은 金甫當의 난 이전까지 武人政權 아래에서 관직을 역임했다. 이러한 사실은 朴仁碩이 武人政權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朴仁碩이 다시 관계에 진출하였다가 물러나면서,

다행히 죽지 않고 다시 태양의 빛을 보아(관제 재등장) 화살과 돌 사이(전투)에서 몸을 세웠으며, 이름이 조상 대대의 유업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얻은 것이 많

46) 朴菴熙 앞의 논문, 262~264면.

47) 金塘澤, 「李義旼政權의 性格」, 『歷史學報』 83 (1979);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49~50면과 張叔卿, 앞의 논문, 71~74면 참조.

48) 李義旼 정권 이후 林椿이 하향함으로써 중앙에 있어서의 고문 계층의 움직임은 좋지부를 적었다 한다(朴菴熙, 앞의 논문, 265면).

49) 『東國李相國集』 19 「故戶部尙書 檜谷居士 朴公仁碩眞贊 并序」

다.……(『韓國金石全文』中 世下「朴仁碩 墓誌」)

라고 한 말을 통하여서도 武人政權 아래서 계속 관계 진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朴仁碩은 은거 기간 동안 종래의 고문 존중의 경향을 취하면서 문인들 가운데 지위를 지켜나가는 한편, 武人政權 아래에서 관계에 진출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IV. 崔忠獻 정권과 朴仁碩

20여년 동안 은거한 朴仁碩은 明宗 26년(1196) 관계에 다시 진출하였다. 朴仁碩의 정계 재등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다① 明宗이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어 대신으로 하여금 정치를 보좌하는데 힘쓰게 하고, 현명한 사람을 발탁하여 태평한 세상을 만들려 하였다. 이 때 재상 昌原公이 公(朴仁碩)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24년만에 현명한 재상의 천거를 받아 東萊縣令으로 임명되니 이 때가 明昌 7년 丙辰(明宗 26년, 1196)이었다. (『韓國金石全文』中世 下「朴仁碩 墓誌」)

위 기록에 의하면 朴仁碩은 明宗 26년 昌原公 崔謙⁵¹⁾의 천거에 의해 東萊縣令직에 임명되었다 한다. 崔謙이 朴仁碩을 천거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정계에서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했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明宗 26년은 崔忠獻이 李義旼을 제거하고 새로운 무인집권자로 등장한 시기다. 그런데 이 때 다①의 내용에 의하면 明宗이 현명한 인물을 발탁하라 하였다 한다. 실제로 현명한 인물을 발탁하려 한 것은 새로이 무인집권자로 등장한 崔忠獻이 의도한 바였을 것이다.

50) 金毅圭는 武人政權 시대 정계에서 은퇴한 문신들은 정계로의 재등장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高麗 武人政權期 文士의 政治活動』, 287면).

51) 昌原公은 李仁老의 「雙明齋記」(『東文選』15)와 『高麗史』99 崔惟清 傳 附 崔謙, 崔訥 傳을 통해 崔謙임을 알 수 있다.

崔忠獻은 집권하자 곧 바로 새로운 문인을 구했다.⁵²⁾ 이것은 李義政 정권과 결탁한 문신을 배제하고, 자신의 정권에 봉사할 문신을 뽑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李義政 정권을 타도하고 등장한 崔忠獻은 李義政 정권에서 소외되었거나 미약한 위치를 차지했으면서도 武人政權에 반대하지 않는 문인을 새로이 발탁할 대상으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朴仁碩은 崔忠獻 정권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朴仁碩이 정계에 재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崔謙의 천거였다. 崔謙은 崔忠獻 정권의 수립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⁵³⁾ 崔謙은 崔忠獻 정권이 수립된 시점에서 崔忠獻이 의도한 문인을 발탁하는 데에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듯하다. 그것은 崔謙이 崔忠獻 정권의 수립에 관여했기 때문에 崔忠獻과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음으로서이다. 崔謙은 崔忠獻 정권에 수용될 수 있는 朴仁碩을 천거하여 관직에 나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朴仁碩이 자신을 崔忠獻 정권에 천거한 崔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崔謙이 武人政權 초에 金甫當 등과 함께 諫官으로 활동하다가 좌천된 사실이 있는데,⁵⁴⁾ 이 점이 崔謙으로 하여금 金甫當 난 이후 관직에서 물러난 문인에게 관심을 갖게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⁵⁾ 崔謙은 朴仁碩이 은거해 있던 기간 동안 朴仁碩에 관한 근황을 듣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崔謙이 20여년 이상 지방에 은거한 朴仁碩을 천거한 점, 나⑦에 보이는 朴仁碩을 애석히 여겨 竹山으로 옮기도록 주선한 중앙의 인물이 崔謙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그렇

52) 朴蔭熙, 앞의 논문, 280면과 張叔卿, 앞의 논문, 75~80면 참고.

53) 崔謙은 崔忠獻 집권 이후 中書侍郎平章事に 올랐다. 崔謙을 비롯한 친족들이 崔忠獻 정권에서 활약한 상황에 대해서는 金塘澤, 「崔氏政權과 文臣」, 앞의 책, 100~101면이 참고된다.

54) 『高麗史』 99 崔謙 전 및 『高麗史節要』 12 明宗 원년 9월 조 참조.

55) 崔謙의 동생 崔詵은 金甫當의 부 金永夫의 문생이었다(『韓國金石全文』 中世下「金永夫墓誌」, 819면). 崔謙·崔詵은 金甫當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게 여겨진다.

崔謙의 천거로 崔忠獻 정권에 참여한 朴仁碩은 10여년 동안 정계에 있다가 戶部尙書로 관직에서 물러났다.⁵⁶⁾ 朴仁碩은 관계에 있으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정치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다. 崔忠獻이 문인을 우대했다고 하나 그것은 다만 崔忠獻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⁵⁷⁾ 朴仁碩은 맡은 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써 정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朴仁碩의 정계 재등장 이후 주목되는 것은 다른 문인과의 교류이다. 이 점은 崔忠獻 정권 이후 문인층의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朴仁碩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밝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崔忠獻 정권 등장 이후 학문·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李奎報에 의해 주도되었다. 李奎報는 고문에 대한 소양도 깊고, 그것을 존중하였지만 고문 계승 주의 문인과는 달리 走筆에 의한 기예 위주의 문인이었다 한다.⁵⁸⁾ 이러한 李奎報의 走筆이 崔忠獻 정권 등장 이후 널리 성행하였던 것이다.⁵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문 존중·계승 주의 입장이었던 朴仁碩은 李奎報와 교류하고 있다. 朴仁碩과 李奎報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다② 제(李奎報)가 평소애 남들과 알고 지내는데 명색은 비록 안다고 하나 실

56) 朴仁碩은 康宗 1년(1212) 69세로 죽었다(『朴仁碩 墓誌』, 956면). 朴仁碩이 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熙宗 5년(1209)~7년(1211) 사이였던 것 같다.

57) 朴舊熙, 앞의 논문, 280면.

58) 朴舊熙, 앞의 논문, 269면.

武人政權 시대 문풍에 대하여 李仁老·林椿과 같은 형식 위주의 계열과 李奎報·崔滋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이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고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金晧東, 『高麗 武臣政權時代 繪畫에 나타난 文人知識層의 現實認識論』, 『慶大史論』 2 (慶南大, 1986), 11~13면). 李奎報 등이 고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이들은 林椿 등에까지 이어진 고문 존중·계승의 문풍과는 다른 계열의 문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朴舊熙, 앞의 논문, 263~269면 참조).

59) 朴舊熙, 앞의 논문, 282면.

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질책해 주며 정신이 합하는 사람은 尙書 嚴君(朴仁碩) 뿐이었습니다. (『東國李相國集』 27 「與朴侍郎犀書」)

李奎報는 자신에 대해 질책해 주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朴仁碩 뿐이었다고 하고 있다. 朴仁碩은 李奎報의 학문·문학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질책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朴仁碩의 태도는 崔氏武人政權 아래서 성행한 李奎報의 주필에 의한 문단의 경향을 이해하려는 일면과 종래의 고문 존중·계승의 입장을 유지하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한다.

朴仁碩이 자신과는 다른 경향을 가진 문인과 교류했다는 점은 慶州에 거주한 문인 安置民과의 만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다③(李奎報가) 시급히 만나 뵙고 싶었는데……군사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어떻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군막의 簽判 朴郎中(仁碩) 처소에서 처사(安置民)께서 바야흐로 朴公과 이야기할 때 마주쳤는데…… 그 뒤에 蒲池寺에서 朴公과 같이 있다가 특별히 처사를 맞이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며 시 수 편을 짓고 헤어졌습니다. (『東國李相國集』 27 「軍中答安處士置民手書」)

朴仁碩은 神宗 5년(1202) 경주민들이 난을 일으키자 中軍判官으로 종군하였다.⁶⁰⁾ 이 때 朴仁碩은 함께 종군한 李奎報와⁶¹⁾ 같이 慶州에 거주한 문인 安置民을 만났던 것이다. 安置民은 慶州 출신의 문인으로 李奎報와 같은 경향의 문학태도를 가지고 있었다.⁶²⁾ 다③에서 알 수 있듯이 慶州 출신인 安置民을 만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朴仁碩은 그를 초청해 만났다. 이것은 종래 權敦禮·林椿 등과 함께 고문 계승의 태도

60) 「朴仁碩 墓誌」, 955면 및 『高麗史』 100 丁彦真 전 참고.

61) 李奎報는 兵部錄事兼修製員으로 종군하였다(『東國李相國集』, 「年譜」).

62) 安置民의 자는 淳之이며 棄菴居士로 불리기도 했는데 시·회화 등에 뛰어났다 한다(『補閑集』 上 「翰林學士吳學麟」, 中 「棄菴居士安淳之」). 安置民은 내용을 중시하는 회화관과 고문을 익힌 장의 위주의 문풍을 가진 문인이었다 한다(金晤東, 앞의 논문, 20면). 安置民은 李奎報와 비슷한 계열의 문인이었다 하겠다.

를 지향한 朴仁碩이 다른 입장에 선 문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는 다른 경향을 가진 문인을 이해하고 긍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도 朴仁碩은 고문 존중·계승의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그것은 앞에서 인용한 나④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朴仁碩이 고문에 조예가 깊은 兪升祐을 ‘밤을 비추는 구슬’이라고 표현한 점, ‘구하려 해도 구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평한 것은 바로 朴仁碩이 고문 존중·계승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崔忠獻 정권 아래서 문인으로서의 朴仁碩의 활동은 海東耆老會의 참여로 정리되었던 것 같다. 海東耆老會는 崔謙 등 관직에서 물러난(致仕) 문인들이 神宗 6년(1203)부터 뜻을 같이 해 만든 것이다.⁶³⁾ 최종으로 9명의 문인이 회원으로 구성된 그 회에 朴仁碩은誌를 지어 주는 등, 준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였다.⁶⁴⁾

海東耆老會는 정치 활동의 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시연과 오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였다. 이 회의 구성원은 대개 崔忠獻 정권 초에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었다.⁶⁵⁾ 따라서 그들은 李義政 정권 아래서 소의 되었거나 권력의 상층부에 있지 못했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海東耆老會를 만든 것은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 비슷한 처지에 놓인 문인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위안과 자위를 얻고자 함에서였을 것이다.

63) 『拙藁千百』 1 「海東後耆老會序」 참조. 海東耆老會의 구성원으로는 崔謙, 張自牧, 李俊昌, 白光臣, 高瑩中, 崔詵, 玄德秀, 李世長, 趙通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金龍善, 「高麗 墓誌銘 二例」, 『斗溪李丙熹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知識產業社, 1987), 363~370 면을 참고하라.

64) 「朴仁碩 墓誌」, 955 면에 의하면 朴仁碩이 나이가 차지 않았으나 회에 참가했다고 되어 있다. 朴仁碩은 李仁老와 마찬가지로 정식회원은 아니었으나 회의 구성원과 어울렸다(『拙藁千百』 1 「海東後耆老會序」).

65) 金龍善은 海東耆老會의 구성원은 崔氏政權을 후원한 일부와 明宗 때 불우한 시기를 보내다 崔氏政權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출세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내부적으로도 긴밀하게 결속된 사회집단이라 하고 있다(앞의 논문, 369 면).

朴仁碩이 그러한 회에 참여한 것은 崔謙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며, 그 회의 구성원과 비슷한 입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朴仁碩은 자신을 崔忠獻 정권에 천거한 崔謙과 계속 유대를 가졌을 것이다. 이로 인해 朴仁碩은 崔謙이 주축이 되어 만든 그 회에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고 하겠다. 또한 海東耆老會의 구성원은 朴仁碩보다 나이가 많았으므로 대체로 武人政權 등장 이전부터 관계에 진출했던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崔忠獻 정권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새로운 학문·문학의 경향으로 정계와 문단에서 물러나 뒤흔으로 처져야만 했다. 이같은 상황은 朴仁碩에게도 비슷한 것이었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朴仁碩은 海東耆老會의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朴仁碩은 崔忠獻 정권이 안정되어 가면서 새로운 문인층과 새로운 학문·문학의 경향이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海東耆老會를 통해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崔忠獻 정권에 참여한 朴仁碩의 문인으로서의 활동은 종래의 고문 존중·계승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李奎報 등 새로운 문인층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金甫當의 난 이후 朴仁碩은 관직에서 물러나 原州에 은거하였다. 武人政權이 등장한 이후에도 문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朴仁碩은 본관 竹山을 놔두고 原州를 은거처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朴仁碩 가계의 중앙 진출 과정과 당시 原州의 분위기가 관련이 있다.

朴仁碩 가계는 고조부 朴衡 때 三韓功臣의 후손으로서 중앙 내지는 본관 竹山에 가진 기반을 상실하고 다른 지방의 문인과 결합함으로써 다시 재기의 기틀을 마련했다. 따라서 朴仁碩은 본관 竹山에 별다른 연고를 갖지 못했다. 한편 당시 原州는 睿宗 때부터 문인간의 교류가 형성되어 문인으

로서의 활동 및 지위 유지가 가능했으며, 전직 문반 관리 權敦禮가 활동하고 있던 곳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朴仁碩은 原州에 은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原州에 은거한 朴仁碩은 權敦禮와 함께 原州를 비롯한 중앙 거주 문인과 교류를 가졌다. 朴仁碩은 權敦禮·林椿 등과 같이 고문을 존중·계승하려는 학문·문학의 경향을 확고히 하면서, 그와 동일한 입장에 선 문인들 사이에서 문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朴仁碩은 權敦禮와 함께 고문 존중·계승 주의 입장에서 학문·문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原州에서의 朴仁碩의 활동은 李義政 정권 등장 이후 불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原州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고문 존중·계승 주의 경향을 가진 문인들은 각기 흩어지게 되었다.

原州에서 竹山으로 옮겨 생활하던 朴仁碩은 崔忠獻이 집권하면서 정계에 재등장하였다. 朴仁碩의 정계 재진출은 崔忠獻 정권에 깊이 관여한 崔謙의 천거에 의해 가능했다. 朴仁碩은 李義政 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해 있었으며, 전직 관리로서 武人政權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崔忠獻 정권에 부합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崔忠獻 정권에 참여한 朴仁碩은 고문 존중·계승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崔氏武人政權 시대 학문·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한 李奎報 등과도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朴仁碩의 태도는 武人政權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고문 존중·계승의 경향을 유지하면서 崔氏武人政權 시대에 새로이 문단을 지배해 가는 경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하겠다.